

'운하'인가 '물길 잇기'인가

금강, 만경강 연계 광역권 개발방향 세미나 열려

국민 60% 이상이 '운하, 단계적 추진도 막아야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대운하 사업의 변형으로 의심되는 세미나가 6월 18일 전북 군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한국지리정보학회 등이 주최하고 전북일보가 주관한 세미나는 새만금과 금강, 만경강을 물길로 연결해 군산지역 발전과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 등을 모색하는 취지였다. 문재원 부분은 군산시가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라는 문서를 통해

보여준 내용이다. 군산시가 추진 중인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는 금강 하구둑-경포천-미제천을 총연장 16km의 운하로 잇는 사업으로 8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한 참가자는 "군산시의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 '금강운하' 계획을 조기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운하'와 '물길 잇기'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절에서 차 만들기 정말 좋아요

금산사,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6월 6-8일 금산사에서 열린 '차 만들기'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차잎을 채취하고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마련한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가 행사 전 조기 신청마감 등 화제와 함께 사찰 템플스테이의 새 지평을 열어 눈길을 끈다.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는 금산사 심원암 주변 1만평 차밭에서 채제한 자생차로 차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접목했다.

6월 6-8일 열린 행사는 접수부터 정원 40여명을 훌쩍 넘긴 인원이 신청해 인기가 높았다. 금산사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산사 관계자는 "발우공양, 예불, 명상 등 전통적인 산사체험에 직접 자생차밭에서 차잎을 따 9분 뒤고 비벼 그늘에 말리는 과정의 전통 제다법을 접목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직접 차를 만들어 스님과 차

담을 나누는 과정이 티백차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는 수행의 한 과정으로 비쳐졌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에서 참가한 윤효섭(46)씨는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복잡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 참가했다. 차잎을 따 뜨거운 불에 차를 뒤는 제다체험을 통해,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향기로운 차맛을 내듯이 지금 처한 현실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고즈넉한 밤 냇물 소리와 편안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맑은 공기는 차 맛을 더욱 진하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흡족해 했다.

남편과 함께 부부가 금산사를 찾은 박숙자(49)씨는 "차나무를 처음 봤다. 차잎을 따고 뒤고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해 좋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으로 하나된 자리

대불청 5·18 묘역서 27차 청년대회 개최



6월 15일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대불청 회원들이 108참회를 하고 있다.

전국 청년불자 1000여명이 빛고을 광주에서 불심을 다졌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는 6월 14-15일 광주 무각사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27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희망! 대동! 나눔!'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14일 광주 무각사 경내에서 각 지구별 율동대회와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각 지구별 율동대회에서는 부산 지구가 '연꽃처럼', 경북지구가 '우리 기쁜 날', 전남지구가 '잔치 열렸네' 등 다양한 율동을 선보이며 경연을 펼쳤다.

촛불문화제는 무각사에서 시작돼 광주시청 앞까지 이어졌다. 촛불문화제를 통해 청년불자들은 사회적 이슈인 한반도 대운하 반대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했다.

촛불문화제 후 열린 전야제에서 도제(원각사 주지) 스님은 "광주에서 청년불자들을 만나 기쁘다. 대불청대회를 계기로 광주 불교청년회가 한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행사는 6월 15일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됐다. 청년불자들은 시상식과 불교청년 결의선언문 낭독, 전국불교청년대회 깃발 이양식, 대불청 발전 서원 108배 참회 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이 있는 5·18묘역에서 진행된 대불청 발전 서원 108배 참회에 감회가 남달랐다는 후문이다.

5·18묘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청년불자

가 사회주인이 되고 희망이 돼야 한다. 투철한 신심으로 큰 서원을 세워 미래를 밝히는 청년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 이승동 회장은 "대불청 범우들이 모여 자비심 가득한 자리였다. 청년불자 모두 보시의 실천을 서원했다"

고 말했다. 한편 2008년 불청대상 시상에는 대구지구 이만희 법우가 불청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지구로 경북지구, 최우수지회로 속초불교청년회가 각각 선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광주 자비신행회 도심에 터잡았다

6월 13일 장동으로 이전·개원식 열어

광주지역 대표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도심 장동으로 이전해 광주지역 신행활동이 새 전기를 맞았다. 시외곽 내남동 폐교에서 위치했던 자비신행회는 지리적 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6월 13일 이전에 개원식을 가진 공간은 1999년 자비신행회가 노인무료급식을 시작하며 인연 맺은 공간이다. 전체 220평의 면적에 노인무료급식소(40평), 강당(법당, 45평), 다도교

육장(20평), 시민선방, 주방,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자비신행회는 노인무료급식과 재가 화엄학림 교육과 법회, 다도교육장 등 다양한 신행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화영 이사장은 "광주지역 불자 누구나 동참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전남지부 윤예중 사무국장

부처님 일은 나의 사명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전남본부(이하 생명나눔) 활동은 호남불교계에서 유명하다. 1998년 광주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광주전남지부를 찾아 윤예중 사무국장(사진)을 만났다.

"불교단체가 많지만 자생력을 갖고 사회적 활동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는 적다. 특히 호남지역 불교단체는 열악하다. 미비하지만 10여년 세월 동안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위해 꾸준히 활동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 자체부터 의의가 크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본부장 현지스님을 비롯해 30명의 이사로 구성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나눔에 참여중인 이사는 주로 광주·전남지역 사찰 주지스님들이다. 원효사·증심사·원각사·문빈정사·연화사·정안사·비전사·달마사·동원사 등 지역 사찰과, 콜롬버스시네마·미르치과병원·연화유치원·반야유

운 국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 율화정사 학생회를 시작으로 불교에 입문한 꽤 오래된(?) 불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해남 대흥사 기획과장을 거쳐 생명나눔에 왔다. 광주지역 청년불자를 모인인 육화포럼 멤버이기도 한 그는 생명나눔을 통한 봉사만큼이나 신생활도도 으뜸이다.

윤예중 국장 가족 모두 신심도 대단하다. 윤예중 국장은 물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만난부인 김혜숙씨도 "부처님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국장의 남다른 신심은 가피

소외받는 중생들 어떻게 도울까 '화두'

치원·절로가는길·작은음악회 등 아름다운나눔의집 소속 10곳이 참여해 소아암백혈병 환아들에게 동참하고 있다.

생명나눔 회원은 장기기증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뉘어 지난 10년간 2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 회원이 이룬 성과는 2007년만 해도 치료비 지원 5000여만원·현행증서 1500매 지원·혈소관 현행지원 42건 등으로 광주지역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윤예중 국장은 "생명나눔을 시작으로 소아암백혈병 환우 지원체제와 혈소관 현행공여 체계가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소외받는 중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 이어졌다. 5년 전 퇴근길에 차가 전복된 사고를 당해 목뼈를 다쳤다. 병원 진단단 12주였다. 그때 주치의는 윤예중 국장에게 "당신같이 운 좋은 사람은 처음 봤다. 목뼈가 겨우 붙어 있는데 신경을 교묘히 건들지 않았다. 아주 살짝만 엇갈렸어도 목 아래 하반신은 마비가 됐을 것"이라 말할 정도였다. 윤 국장은 당시 대흥사 천불전에서 매일 같이 기도할 줄 알았다.

윤예중 국장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에서 아무 장애 없이 회복된 것은 부처님 일한 공덕 덕분"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일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윤 국장의 당당함은 생명나눔에서 크게 빛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대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김기현·김택선 합장

법률사무소 서안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 017-535-0685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 2008년 7월 2일(수요일)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교육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적용 → 효과
금연, 금주, 단도박, 다이어트, 도박 개선, 불안감 해소, 성격개선, 대인공포, 중독, 적대감, 우울증, 마음에 상처, 학습능력, 기억력, 집중력, 건강, 정력, 자연치유능력, 심인성 장애, 부부 갈등, 외상후 스트레스, 빙의에 의한 사업실패, 건강악화, 정신이상 등등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송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자리아타의 정성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앞 ☎ 02)763-0661~2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유마 거사)